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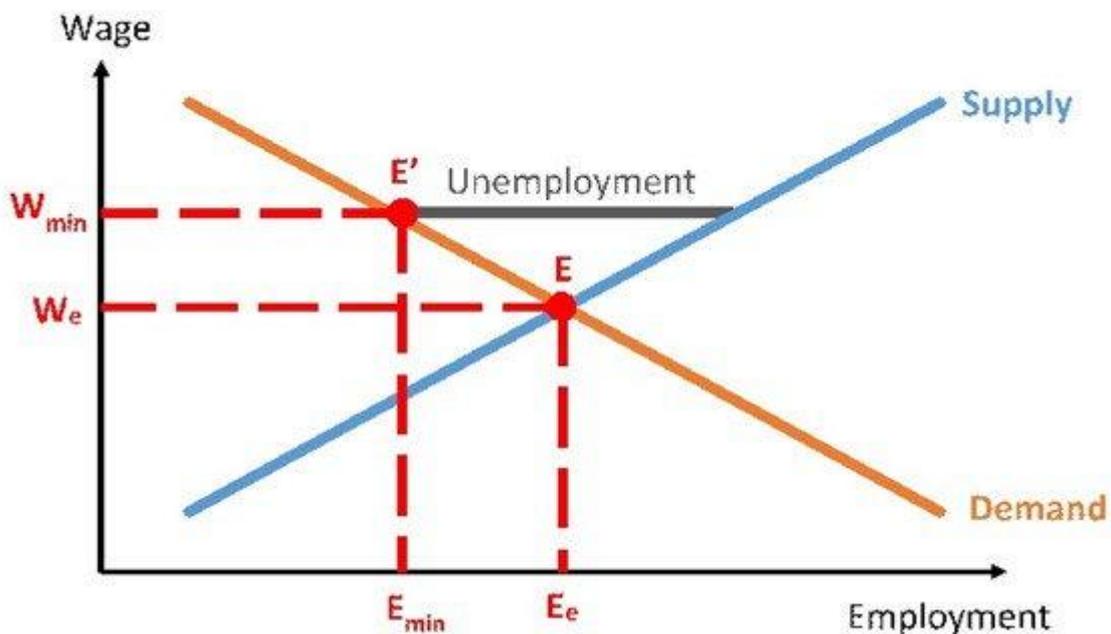
급작스러운 원가 상승은 이익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산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다. 퀴즈노스 샌드위치 가맹점의 30% 정도는 정부지원대출마저 상환불이행하는 실정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에는 올해 최저시급을 \$11.60 에서 \$14 로 인상하였으며 내년 1 월 1 일까지 \$15 로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증가율로 따지면 각각 20.7%, 29.3% 인상이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때문에, 특히나 팀 호튼 가맹점의 높은 원가를 고려하였을 때 온타리오 주의 음식점들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줄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러한 프랜차이즈들이 직원수를 줄이지 않은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내 무인 자판기(키오스크)에 투자하여 혹독한 임금인상에 대응하고자 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연방 최저시급은 \$7.25 로서, \$15 로 인상한다면 원가는 두배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임금 우생학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원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공급선 (노동자들이 노동을 공급함, 그래프 상의 청색선)과 수요선 (노동자를 원하는 고용주들, 그래프 상의 황색선)이 만나는 지점, 그래프 상의 E점에서 결정된다. 소매점이나 음식점에서 일하는 데에는 고등학교 졸업장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균형점은 비교 예시로서 수년간의 훈련과 공부를 필요로 하는 흥부외과의보다는 낮은 점에 위치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부과해버리게 된다면 (그래프 상 회색선) 임금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그 비용은 노동자들이 지게 된다. 기존 임금이 이제 E'점에 형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고용주들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적은 사람들을 뽑고 싶어한다. 이에 따라 잉여 노동력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삼각형이 생긴다. 즉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실업자들인 것이다. 이 사진 한 장^[1]이 최저임금에 대해 모든걸 설명해준다. 한마디로 임금 우생학인 것이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실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원래 최저임금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혁신주의 시대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까지의 시기)에 고안된 것으로서 당시에는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거"함으로써 인류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생학인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우생학적 태도가 노골적으로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인들을 겨냥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생산성 때문에 낮은 임금을 받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시 후버(Hoover) 정부는 데이비스-베이컨 법 (Davis-Bacon Act)을 1931년에 통과시켜 모든 연방 계약은 "적정 임금" (주로 노조를 통해 결정된)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것은 겉보기와는 달리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이민자들을 "제거"하고 노조에 가입한 백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자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법안에 찬성하였던 이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인종차별적 의도를 밝혔다. 하원의원이었던 클레이튼 올굿 (Clayton Allgood)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계약자는 값싼 피부색의 노동자를 수송하고 숙소에 넣어두는데, 전국적으로 그러한 노동자들과 백인 노동자들이 경쟁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종차별적 의도는 사라졌지만 최저임금제가 가지는 효과는 여전하다. 최저임금제는 돕고자 하는 사람들, 즉 미숙련 노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폭을 좁힌다. 그래서 노동통계국의 실업률 통계에 속아서는 안된다.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16~19세)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도 다른 세대와 같이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청소년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실업자 수를 낮추게 된다.

인종별로 보면 더 좋지 않다. 2017년 12월 기준 28.8%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들만이 취업하였거나 구직중이었는데, 히스패닉계 청소년은 31.6%, 백인 청소년은 36.7%를 기록하여 대조를 이뤘다.

정리하자면, 온타리오 주의 사람들뿐 아니라 전세계 어디든, 자신의 분노를 이러한 임금
우생학을 벌인 공무원들에게 표출해야 한다. 사기업들은 무제한의 현금을 갖고 있지 않
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을 위해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힘든 결
정에는 근로시간 축소, 가격 인상, 해고, 최악의 경우에는 파산까지 이른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minimum-wage-fallout-is-caused-by-government-not-businesses/>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박재상

이 글은 FEN 경제지식 네트워크 해외 정보 번역 코너 <http://fen.or.kr/?p=1703>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